



026

GCCI NEWS

김포상공회의소 단합  
회합 | 창성 | 활동

## “묵묵히 걸으면 길이 된다”

(주)세창이피에스 박득용 대표이사

대박 보다 대를 잇는 기업 만든다는 생각이 중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 ‘신용’ 이 최고 가치

역동적 경제발전과 도시화, 물류 확대 등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힘입어 소비자 시장에서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포장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 강화, 원재료 가격 변동, 예측 불가능한 원가 및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철학으로 1998년 창업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친환경제품 생산, 제품 다각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세창EPS 박세창 대표이사를 만나 삶의 이야기와 함께 비전을 들어본다.

### 세상에 탄탄대로는 없다

지금 30여 명의 직원, 2천 평에 달하는 부지에 다양한

생산시설을 갖춘 스티로폼 전문생산 기업으로 자리를 잡은 (주)세창EPS 박득용 대표이사. 웃음 좋은 박 대표를 보면 탄탄대로만 걸어온 자수성가형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세창EPS가 있기까지 돌길, 가시밭길을 걸었다. 전라남도 완도 출신인 그는 광주에서 생활하다가 20세 되던 해에 상경했다.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취업한 곳이 스티로폼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다.

1980년대 초반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전까지 소주병 등의 마개로 사용하던 코르크 마개를 대체할 스티로폼 마개를 개발했다. 첫 반응은 뜨거웠다. 원가 절감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하며 팔려나갔다. 하지만 코르크 마개가 갖고 있던 통기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여름철이 되자 폭죽을

울리듯 가게 마다 납품됐던 소주병들이 마개를 쓰아 올렸다. 손실보상을 감당하지 못한 회사 대표는 잠적했고,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다. 쉽게 풀릴 것만 같았던 서울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 40세, 모든 것을 투자해 창업

스티로폼 업계에 발을 들인 후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노하우를 쌓은 박득용 대표는 1998년 주택 등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매각해 감동동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창업했다. 박득용 대표는 “젊었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대로 다 될거라 믿었고, 그러기 위해 매일 구로공단에 기업들을 찾아다녔어요. 얼마 안 돼서 인켈에 납품하게 됐고 삼보컴퓨터에도 납품하게 되면서 ‘이젠 됐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박 대표의 생각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된다.

삼보컴퓨터가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부도나면서 받아놓은 어음이 휴지가 되고 만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8억의 부도를 맞으며 위기를 맞게 됐다. 공장은 물론 집까지 압류 예고서가 날아왔다. 박득용 대표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4년 내에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4년 여 만에 8억원을 모두 정리하며 거래처들의 신뢰를 쌓게 됐다. 박득용 대표는 당시 5년 여 동안 낮에는 생산하고 밤에는 2.5톤 트럭에 물건을 싣고 경상도까지 직접 운전해 납품을 했다. “나는 손해를 봤지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5년 이상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 “여보, 딱 보름만 도와줘요”

박득용 대표가 마음 놓고 영업도하고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곁을 지켜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업 후 15일만 나와서 일을 봐달라던 남편의 꼬임(?)에 출근했는데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공순 이사는 “처음부터 일이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부도를 맞았는데 밤에 꾸꾸꾸고 누운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곁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고생 끝에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좋은 곳에 여행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한다. 심지어 너무 예뻐서 산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계절을 넘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란다.



027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김포상공회의소

이 이사는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회상한다. 다행히 근면성실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두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출산했다. 이공순 이사는 “딸들에게는 결혼 후에는 직장보다 육아에 집중하고, 신혼을 즐기라고 당부했다”며 “세상 살다 힘든일 만나면 안아주고 북돋아 줄 사람은 가족이기에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 맨 앞에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대를 이어 세상과 상생하는 장수기업 만들고 싶다

젊은 자신감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4반세기가 흘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창EPS에서 한술밥을 먹었다. 그 중에서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 박득용 대표는 “직장은 한 가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터전과도 같은 곳”이라며 “일하는 직원들이 오래도록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도 기여하며 대를 잇는 장수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세상은 시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지만 따뜻한 인간성과 사람간의 신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다”는 박득용 대표, 그의 말 속에 짙은 사람 냄새가 난다.

**세창EPS**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41번길 81  
 TEL | 031-981-1580 www.세창이피에스.com

**주 생산품**  
 여상자 박스 / 전자제품 케이스 / 헬멧 / 건축용자재 / 부표